

이 길이 쪽 열리면 변경지역 백업이 통한다

—G331 따라 발전 계획의 실행 경로 탐구한다



G331 국도 집안—림강 구간, 길게 뻗은 길옆으로 압록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 류향희기자

집안—훈춘, G331 국도가 길림성을 지나는 1,437킬로미터 되는 구간은 수려한 산수풍경, 풍부한 토산물에 독특한 변화 풍토를 품고 있다.

올해 6월, 우리 성에서는 〈길림성 변경 (沿边) 개방관광대통로 관광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G331 국도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전력 추진하기로 하였다.

7월 3일과 8월 8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두번이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찾아 천리 변경선을 따라 현지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변경개방 관광대통로 건설을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한쪽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리며 가장 아름다운 풍경선과 청림공사, 정품공사로 구축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 흥변부민, 농업 문화관광의 심층적 융합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힘써 ‘일통백통’ (一通百通)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통’(주 : 한갈래 길을 여는 것)으로 ‘백통’(주 : 개방 협력으로 상통 발전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은 G331 관광대통로에 더욱 많은 현실적 의의를 부여했다. 아래 G331 국도를 따라 발전 계획의 실행 경로를 탐구해본다.

길림성 특색산업 발전의 ‘황금길’

집안에서 G331 국도를 따라 100여 킬로미터 북상하면 립강에 도착한다. 립추를 맞으며 립강구역내의 국도 옆 백마랑촌에 들어서니 일망무제한 ‘오미자바다’가 펼쳐져있다. 백마랑촌의 경작지 면적은 2,182무인데 1,900무에 오미자를 재배한다. 오미자의 연간 생산량은 300만근 이상, 생산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촌의 당지부 서기는 “최근 몇년간 오미자 시세가 아주 좋아져 촌민들은 오미자 재배에서 단맛을 보았다.”고 기뻐한다.

립강에서 계속 동쪽으로 200여킬로미터를 가면 장백현에 들어선다. 장백현은 ‘립하에 노다지, 생태부민’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바 당지 실정에 맞게 령지, 옥목이버섯 등 립하 공예작물 재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현의 송삼 (松杉) 령지생산기지 면적은 740여무로 령지군 피나무 토막을 60여만개 생산하고 있는데 령지의 연간 생산량은 45톤, 생산액은 1,000만원 넘는다. 령지산업의 발전은 장백현으로 하여금 생태보호와 경제효익의 쌍풍작을 실현하게 했다.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느라 한

편은 산발이 연변하고 산봉우리가 첩첩이 푸르며 한편은 맑은 강물이 굽이쳐 흐른다. 산수 사이에서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쪽쪽 솟아난다.

무송을 거쳐 기자는 장백산인삼의 핵심산지 및 그 주산지를 방문하였고 안도, 화룡, 도문을 지나 훈춘에 도착하고 보니 도중의 장백호안만년청 (长白山眼万年青), 화룡의 입삼, 도문의 과일주, 훈춘의 키크랩...이 잇혀지지 않는다.

G331 길림성 구간 연도의 216개 변경촌은 풍부한 지역 자연자원, 많은 변합구, 우수한 생태환경 등 잠재적 우세로 인기를 모으면서 산업을 흥성시켜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관광경제, 특색 재배업 양식업, 제품가공 등 향촌산업의 출기찬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의 봄바람을 타고 ‘일통백통’하는 걸로 G331 국도는 길림성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해 빛나는 ‘황금길’을

향량 10만 +, 년평균 기온 4.3℃이며 온천 자원이 풍부하여 명실상부한 ‘천연산소바’, ‘생태화원’이다.

한 지역의 환경은 그 지역의 문화가 형성되는 옥토로 된다. G331 국도 연선에서는 아리랑의 메아리가 들려오고 상모춤 채색띠가 선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랑면, 감지 그리고 선지순대와 우라신선로를 맞볼 수 있는 가 하면 어렴문화를 체험할수 있고‘갈라하’(嘎拉哈)잡이 유희를 즐길 수도 있으며 눈발구를 탈 수도 있다...

이곳은 홍색자원이 풍부하다. 광활하고 장창한 장백 립해에서 동북항련 영웅들은 민족독립을 위하여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 흘려 싸웠다. 해방전쟁 때 ‘림강 4차 보위전’을 전개했고 10만 장병들은 청춘과 열혈로 료심전투의 승리 및 동북전역의 해방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 홍색자원의 자양은 한세대 또 한세대의 동북인을 교육해왔다.

이곳은 길림성에서 가장 풍부한 관



이어낸다.

아름다운 길림성을 세계에

‘천년적설 만년송, 인간 제1봉으로 go!’

G331 국도의 아름다운 진주띠에서 가장 눈부신 일환은 두말할 것 없이 ‘동북지붕’과 ‘동북물탕크’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지닌 장백산이다. 길림성 경내 세갈래의 큰 강인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은 모두 이곳에서 발원하여 나중에 압록강, 두만강은 전체 국경선을 흐른다. 그리하여 ‘일산랑강’은 우리 성의 변경선에 도착하는 상징적 특징으로 되었다.

산세와 강의 흐름은 G331 국도에서 굽이굽이 천혜의 생태 우세를 형성하였다. 이곳은 삼림피복률이 86%, 공기질이 1급, 공기 우량일수 비례가 100%, 립방센치메터당 음산소이는

광자원을 집결하고 있는바 곳곳이 특색 있어 10리가 멀다하게 다른 하늘 아래를 방불케 한다. ‘변세의 강남’ 집안은 ‘암록강변—28촌’의 가장 아름다운 향촌 특색 브랜드를 구축했다. 룡정 만무과원에서는 사과배 향기가 넘실대고 도문시 백룡촌 100년 부락 건축군에서는 ‘농경무’가 세월이 흘러도 쇠퇴하지 않는다. 중, 로, 조점정지대 ‘동방 제1촌’ 훈춘 방천촌은 ‘한눈에 3국’을 바라볼 수 있고 장백산 아래 놓은고성 (谿殷古城)은 전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녀진부락 삼림 고성이다...

우리가 G331 국도를 구축하는 것은 길림성을 세계에 소개하는 ‘모텔 부스’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경제의 변영 추진하는 대통로

7월 16일, 무송—장백현 국가 고

속도로 (이하 ‘송장고속도로’) 항목의 처녀만 터널 (姑娘湾隧道) 시공을 시작했다.

비록 프로젝트 진전의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현지인들은 이는 장백현에 고속도로가 통하지 않던 역사를 종결할 날이 좀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길림성 변경개방관광대통로 관광 발전 계획〉은 교통을 맥락으로 하는 관광화랑의 생성 모식으로 된다.

높은 표준의 간선망을 촘촘히 짜는 것은 변방을 따라 개방된 관광대통로를 건설하는 하나의 작력점이다.

어느 쪽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가?

성교통운수청 관련 책임자는 변경촌 관광지의 도로 통행 조건을 대대적으로 제고하고 변경 현, 시, 도시 구역에서 중점 관광지까지의 2급 도로의 전면 피복과 A급 이상 관광지의 포장도로 전면 피복을 실현하며 ‘폐속 진입’, ‘느린 관광’, ‘순환’이 일체화된 교통망을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고 표했다.

송장고속도로가 개통되면 G331 선에 있는 장백현에서 장백산 천지 서구까지 이르는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이 시간의 원가는 려객 흐름과 물류를 발전시키는 각도에서 볼 때 돌파적인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우리 성 변경지역은 이미 학강에서 대련까지, 왕청에서 삼합까지 기본적으로 건설되었다. 훈춘—울란호트, 연길—장춘, 장춘—장백, 휘남—림강, 장춘—료원—집안 ‘2종 2월 3방사’ 고속도로 통로를 구축했다. 국내에서 성내까지, 성내에서 G331 국도에 진입하면 성내의 려객들은 재빨리 변경으로 직행하여 관광할 수 있다.

성당위 당학교 경제학교육연구부 주임 고운은 ‘국가 변경 1호 풍경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방 특색을 띤 정품 관광 상품을 출시하여 관광객들의 개성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관광업의 발전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력하게 견인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변영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변경개방관광대통로 건설에 의탁해 G331 국도가 전 성 경제사회발전 나아가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돌파구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G331 ‘일통’으로 하루빨리 ‘백통’하기를 기대한다.

/ 길림일보

올해 민항 려객운송량 연인원 7억명 전망

국가 민용항공국 국장 송지용이 13일 ‘제2회 아시아—태평양 항공 안전 세미나’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중국 민항 운송 규모가 19년 연속 세계 2위를 유지하며 세계 항공 운송 성장에 20%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 민항의 올해 상반기 운송 총 회전량, 려객, 화물 및 우편 운송량은 2019년 동기 대비 각각 11.9%, 9%, 18.7% 증가하며 확장세를 보였다. 올해 연간 려객운송량은 연인원 7억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운송 항공기 4,335대, 운송 공항 262개를 보유하고 있다. 공항 총 수용 규모는 연인원 16억명에 이른다. 드론의 연간 비행시간은 1,000만시간 수준이며 매달 10만대의 드론이 신규 등록되고 있다.

‘제2회 아시아—태평양 항공 안전 세미나’는 중국민항국, 국제항공 안전재단 (FSF),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의 공동 주최로 13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 신화사

만주리통상구, 출입경 려객 동기 대비 104% 늘어



12일, 출입경 수속 려객이 줄을 잇고 있는 만주리통상구.

내몽골변방검사총소 만주리변방검사소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까지 만주리통상구 출입경 려객은 연인원 50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만주리통상구는 도로·철도·공항 등 3개의 국가 1급 통상구로 이

뤄진 종합 허브형 통상구이다. 올해 들어 이곳 검사소는 디지털 국경, 스마트 통상구 건설을 추진하고 10개 이상의 통상구 프로세스 최적화로 려객, 화물 운송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 신화넷

연변, 처음으로 촌급 택배 공익성 일터 설치

첫 촌급 배송물류종합봉사 공익성 일터 택배원 취업

룡정시 촌급 배송물류종합봉사 공익성 일터 초빙 계약 및 취업식이 일전 룡정시 로투구진에서 있었다. 이는 연변에 첫 촌급 배송물류종합봉사 공익성 일터 촌급 택배원식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촌급 배송물류종합봉사 공익성 일터 택배원직을 전문 설치하는 것은 빈곤해탈 인구의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기초상에서 촌급 배송물류종합봉사 역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촌급 배송물류봉사의 능력, 시효,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산 생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농민들의 행복감, 획득감을 뚜렷이 제고하기 위해서

이다.

초빙 계약식에서 룡정시 로투구진 정부와 우정그룹유한회사 길림성 룡정시지사는 촌급 배송물류종합봉사 공익적 봉사 협의를 체결했다. 촌급 배송물류종합봉사 공익성 일터에 초빙된 26명의 택배원은 로투구진의 22개 촌로부터 선발 초빙되었는바 우정그룹유한회사 길림성 룡정시지사가 현지에 내려가 엄선, 룡정시향촌진흥국에 보고후 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

룡정시는 향진 배송물류종합봉사 공익성 일터 초빙사업을 계속하여 차례를 나누어 완수하게 된다.

/ 연변뉴스넷

공과 패모 간종으로 무당 2만여원 수입!

집안시 재원진에서는 공과 패모를 간종해 ‘1지 쌍수’의 농업생산의 새로운 풍경을 이루었다.

재원진 쌍흥촌의 촌민 곡계련은 날씨가 좋은 시기를 타 마당에 패모를 말리느라 바빠 돌아치고 있었는데 올해 패모는 알이 굵어 풍작이 란다.

“전에 우리 집 밭은 그저 콩을 심어 한무에 1,000여원을 벌 수 있었다. 촌에서 콩, 패모 간종을 선도하면서 정말 좋은 효익을 거두었다. 지난해는 풋살을 빼고도 무당 2만여원을 벌었다.”며 곡계련은 싱글벙글한다.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기 위해 최근년간 재원진은 당지의 독특한 기후조건과 량호한 생태환경에 의거하여 패모 재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당지 농민들의 소득 증대의 중요한 경로로 만들었다.

토지 리용률과 산출률을 한층 더 높이고져 이 진에서는 적극적으로 농업 재배기술을 탐색 혁신, 패모와 콩을 간종하는 새로운 재배 모식을 도입하고 두가지 작물의 생장주기와 생장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리용하여 토지지원 리용률을 최대화하였다.

재원진 쌍흥촌당지부 서기 서충민은 이렇게 말한다. “단순히 콩을 재배해 무당 1,700원 좌우의 수입을 올리는 데 비해 패모를 심으면 순수익이 2만원 이상 증가될 수 있어 흑

토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효익의 최대화를 실현하여 ‘지상 곡창, 지하 노다지’의 만족스러운 국면을 구축할 수 있다.”

“콩은 패모를 위해 해밭을 가리워 줄 수 있고 패모는 양분을 콩에 공급할 수 있어 두가지를 간종하면 콩과 패모에 다 리로를 뿐만 아니라 콩의 생산량을 늘일 수 있으며 패모도 감산하지 않는다. 흑토지 보호를 전제로 우리는 ‘곡식자루’를 안정시키는 가운데서 ‘돈주머니’를 부풀렸다. 지난해 콩 소출은 무당 460근으로 정상보다 100근 높았고 패모는 무당 생산량이 1,500근 정도 확보돼 무당 생산액이 3만원 가까이 되었다.”

확실한 효익에 재원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촌민들이 패모, 콩 간종의 대렬에 합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원진은 중약재 재배 봉사점을 설립하고 재배 의향이 있는 당지의 농가를 인솔하여 집단적으로 패모, 콩 간종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농가 + 촌집체 + 회사’, ‘인솔자 + 농가’ 등 여러가지 협력 모식이 병존하고 농업기술인원이 전간에 내려가 중약재 재배와 관리 전반 과정의 기술지도를 진행하면서 과학적 재배 관리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재원진의 패모, 콩 간종 면적은 980무로 발전했다. 지난해 생산액은 루계로 1,620만원에 달해 리윤 560여만원을 올렸다. / 길림일보

